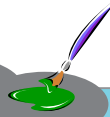


설문대문화학교 프로그램



* 책과 노는 아이들 모임

- 역사책 읽는 아이들 모임
(4학년 이상, 매주 목 저녁 7시)
- 두린아이 속닥속닥 책놀이 (6~7세 대상)

* 주말 책 놀이터

- 옥타브 아이 아카데미 (초1~초3)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움직이는 도서관', 토요일엔 두벅두벅 자연 유람단' (초3~초6)
- 꿈지기 아저씨와 부르는 노래 (초1~초2)

* 책읽는여우들

* 행복한책나들이 (농촌병설유치원 책읽어주기 자원봉사)

* 설문대어린이도서관 책잔치 (11월)

* 여름독서교실 '꽃들에게 희망을'

* 겨울독서교실 '책 친구들과 몸놀이 해요'



2012년 하반기 프로그램 참가자를 모집합니다.

- ❖ 역사책 읽는 아이들 모임, 두린아이 속닥속닥 책놀이,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옥타브 아이 아카데미'
- ❖ 접수일 재 8월 23일부터 선착순 접수

후원해주신 분들

-CMS 후원인 명단

강경남 강경림 강경희 강동근 강미수 강만숙 강문정 강병관 강병삼 강보승 강봉석 강수민 강수선 강순연 강순희 강승희 강영기 강영미 강윤수 강은아 강인숙 강지니 강찬구 강창화 강평구 강혜영 강희경 고경완 고만성 고명옥 고미경 고미수 고민자 고복희 고석용 고성범 고성호 고양열 고영미 고영순 고유경 고유숙 고윤석 고의숙 고정희 고현권 고희영 김경미 김경민 김경순 김경영 김경옥 김경옥 김영심 김기옥 김량희 김만생 김명선 김미조 김봉진 김상림 김성호 김성환 김인자 김세희 김소희 김수옥 김순덕 김승희 김 신 김양화 김연숙 김영미 김영민 김영원 김오순 김옥희 김용남 김용식 김용택 김유신 김유정 김윤자 김인영 김재훈 김재환 김정금 김정윤 김종현 김태완 김평숙 김현실 김현석 김현정 김효숙 김효정 김효정 김희정 민동환 문계양 문금선 문미혜 문유성 문인화 문재홍 문정희 문희현 박계임 박태진 백경환 백혜민 변춘순 부영숙 서은영 서종석 성영희 성정선 송미경 송명혜 송시우 송지영 송춘미 신우용 신호철 안연하 안은희 양가애 양석현 양연심 양용선 양인희 양재성 양정옥 양정원 양정은 양종수 양진건 양호선 양희연 양희선 양희정 양희연 오금숙 오신순 오승룡 오승훈 오영민 오정민 오정심 오정임 오종훈 오지은 오택진 오형범 이상임 우지숙 유만중 유종상 유경숙 유경희 유종호 유정환 윤지현 윤희순 이경선 이경희 이광복 이덕송 이상현 이상희 이소영 이영미 이영심 이영호 이 옥 이윤형 이은주 이임자 이주영 이지현 이진호 이창진 이창식 이현동 이현백 이혜연 이호석 이호열 이희숙 임경률 임관용 임미숙 임선하 임승희 임정일 임형주 장미애 장소영 장수명 장은정 장현선 정갑열 정동진 정미혜 정명선 정영수 정영우 정윤중 정유탐 정유탐 조용숙 좌순영 좌순자 좌춘자 지희정 진민주 진성필 진은아 진정실 진창욱 차지연 채정심 채희영 최미자 최종진 최형규 한길숙 한상희 한애순 허순영 허 윤 현경미 현경철 현미경 현명옥 현은정 현은재 현을생 현정숙 현정희 홍경호 홍경희 홍덕봉 홍영희 홍효정 (주)제주관광가이드 (이상 239명)

* 새롭게 CMS로 후원해 주신 분들 : 성정선, 김현석, 양희선, 강미수, 이소영, 민동환, 김경민, 정미혜, 신호철, 김효정 ^^

* 책 기증해 주신 분들 : 양용선 회원님이 간단에 들려 수다 떠다 책구입 하는데 써달라고 거금 30만원을 맡기고 바람처럼 사라지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부끄럽지 않게 쓰겠습니다. ^^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은....

- ❖ 설문대어린이도서관은 1998년 10월에 문을 열어, 미래의 주인인 우리 어린이들이 좋은 어린이 책과 문화 활동을 통하여 올바른 가치관과 인격을 지닌 사람으로 이끌어 주는 목적을 가지고 지금까지 꾸준히 독서 문화활동을 펼쳐 나가고 있습니다.
- ❖ 우리 도서관은 비영리 문화단체 사립공공도서관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하고 있으며 약 10,300여권의 도서를 보유 하고 있습니다.
- ❖ 도서관 운영은 후원자 분들(약 250여명)의 CMS 자동이체 후원금과 강좌 참가 수입으로 신간도서구입과 도서관 운영에 알차게 쓰이고 있습니다.

설문대를 이용하려면....

1. 이용시간 화~토. 오전10시~ 오후7시 (동절기는 6시까지).(월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휴관)
2. 회원이 되려면 회원가입은 부모님이 직접 오셔야 됩니다(주민등록증 지참). 회원으로 가입되면 책 대출은 무료이고 강좌는 무료와 유료가 있습니다.
3. 도서대출 안내 한 사람이 3권, 한 가족이 한번에 6권까지 빌릴 수 있으며 대출 기한은 1주일입니다.
* 대출 기한을 넘기면 그 날은 대출이 안 됩니다. 다음날 다시 오셔야 합니다.
4. 후원안내 * 우리 도서관은 무료로 이용되는 비영리 문화단체 사립공공도서관입니다. 꾸준히 좋은 책을 구입하고 활발한 문화 활동을 전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관심과 작은 손길이 필요 합니다.
* 책나무 키우기 CMS 자동이체 후원계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5000원, 10000원) 후원해 주시는 성금은 도서관 운영과 신간도서구입에 알차게 쓰고 있습니다.



설문대 소식



- * 설문대 토요일문화학교 프로그램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프로그램강좌 참가자를 모집 합니다.
- * 올해 농촌유치원 책읽어주는는 남읍초등병설유치원으로 찾아갑니다. 매주 금요일이면 15명의 뚝망뚝망한 친구들이 우리를 반겨준답니다. 아이들의 웃음이 책읽어주기 활동 8년을 후딱 지나게 하네요.
- * 2012년 작은도서관 네트워크 찾아가는 도서관 '책방'은 동광에 위치한 해바라 도서관에서 진행 중입니다. 매월 둘째주, 넷째주 수요일 밤이면 아이 책 읽는 어른들과 아이들로 해바라 도서관이 들썩입니다.
- * '자작나무 숲'과 '설문대'가 함께하는 '옥타브아이 아카데미'가 매월 두 차례 진행되고 있습니다. 작곡가의 숨은 이야기와 그의 음악을 통해 아이들의 감성을 자극하는 시간입니다.

* 올해부터 '주5일 수업제'가 실시됨에 따라 설문대는 '학교밖'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초등 3~6학년을 대상으로 매주 토요일 오후 2~5시, '꿈다락 문화학교' 친구들은 도서관을 벗어나 한라수목원으로 갑니다. 수목원의 자연과 어울려 음악과 미술, 책을 나누는 의미있는 발자국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름방학 프로그램

2012년 여름독서교실 "책 친구들과 몸놀이 해요"

- 대상 : 초등학생이면 누구나
- 일시 : 2월 셋째주 예정
- 접수 : 1월15일부터

여름방학집중특강 설문대 아이들 토론교실

- 대상 : 초등 5-6학년(12명 선착순 접수)
- 일시 : 7월30일 ~ 8월10일 (오후 2시-4시) / 10회 20시간
- 접수 : 7월 20일부터 12명 선착순 접수

꿈다락 토요일문화학교

'움직이는 도서관, 토요일엔 뚝뚝뚝 자연유람단'

제주의 어린이들은 자연 속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느낄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만들어진 문화적 혜택에서는 거리가 멀지라도 생활하는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문화영양분은 너무나 많다고 여겨진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체계적 이면서도 자연스럽게 전할 것인가가 늘 우리들의 과제로 남겨진다.

지금까지 설문대어린이도서관에서는 제주의 돌문화, 오름, 신화 등 제주만의 독특한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아이들과 함께하여 왔다.

주5일제 수업에 발맞추어 『움직이는 도

서관, 토요일엔 뚝뚝뚝 자연유람단』이라는 주제를 내걸고 지속적인 자연 관찰과 음악·그림자극과 같은 문화예술 체험을 경험, 자연과 예술을 오감으로 느끼고 감수성이 담긴 가슴을 열어보는 계기를 마련해 주려한다. 이번 토요일문화학교를 기획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점은, 평일 동안 학교생활에 지쳐있는 아이들에게 더 이상 부담을 주지 말자는 것이다. 해설사나 안내자의 일방적 설명 방식을 탈피하



여 아이들이 자연속에서 뚝뚝뚝 자연의 영양분을 받고 스스로 자연이 주는 소중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자연과 함께하는 지속적인 관찰을 통하여 자연 속에서 공존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사회에 나가서도 타인과 더불어 나누며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목표이자 방향이다.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아이들의 발자국...

내 나무

김수민 (백록초 3)

내가 내 나무에게 말을 걸면
꾸지나무가 대답한다
알 수 없는 말도 한다.
휘어진 내 나무
아팠나보다.
있는 적지만
내 나무여서 더 예쁜 꾸지나무.

색깔

문상혁 (동광초 5)

빨간색, 우리나라의 색
주황색, 우리 땅의 색
노란색, 아름다운 꽃의 색
초록색, 멋진 잎의 색
파란색, 지구의 3/4을 차지하는 물의 색
보라색, 요즘 생겨나는 건물의 색
하얀색, 하늘을 덮는 구름
색이 합치고 합쳐 세상이 되네.

내 나무 아래에서

홍지우 (백록초 3)

내 나무는 종가시나무
내 나무 아래에서 시를 쓴다.
내 나무는 친구가 많다
개미들이 덕지덕지
작은 메뚜기가 폴짝폴짝
내 나무를 안아보고 사랑한다고 속삭인다

*영경귀 찾아 삼만리...오늘 미션 중 하나가 영경귀를 찾아서 12명 모두 나오게 인증샷을 찍는 거였다. 찾을 수 없는 영경귀, 그래서 두 개 중 또 하나인 오름 정상에서 기념 사진 찍기부터 하고 영경귀 사진에 도전했다. 찾긴 찾았는데, 얼굴이 다 안 나와서 신발로 얼굴을 대체했다. (홍지혜 6)

*수목원에서 새로운 것을 알아서 좋았다, 별꽃도 직접 봐서 좋았다, 가장 기억나는 나무 이름은 병아리 꽃나무이다, 처음에는 여기 오는 게 싫고 힘들었는데 이번에 오니까 계속 오고 싶다, 참 재밌는 시간이었다, (이다희 3)

*오늘은 수생식물을 배웠다, 비가 와서 도서관에서 했다, 그리고 물질에 따른 정화도 배웠다, 마지막에는 우리가 정화한 물을 넣어 금붕어를 키우기로 했다, 이름은 구름이와 비나이다, 부레옥잠도 같이 키워 정화가 되는지 지켜볼 것이다, (양은정 6)

설문대에 보내는 편지

강화도에서...

김연지



벌써 강화 이사 온 지 한 달 넘어갑니다. 어젠 집들이했어요. 집에 온 손님들 밖에서 대접하기 그래서 집에서 간단히 식사나 준비하자 했다가.. 발이 통통 부었습니다. 넉넉히 대접하고 싶은 마음과 상관없이 배 불러 오면서도 불편함이 난 혼자 몸이 아니구나 싶네요.

얼마 전 남편이랑 건축학개론 봤는데, 마음 한 칸이 아련해오는 것이 아직 난 제주에 있는 거 같은 착각.. 문 열면 제주 그 푸른 바다가 앞에 있는 듯한데... 눈에 담고 맘에 담아 오고 싶었던 끝없이 펼쳐져 있는 강화갯벌바다를 보면서 '저건 바다가 아니야' 하는 걸 봐선 아무 것도 담지 못한 허전함과 그리움만 가득하네요.

어쨌, 나 없는 제주에서 잘 사시는지요? 잘 살고 있다면 배 아프고 못 살고 있다면 맘 아플 것 같은 심보가 있습니다. ㅋㅋ 사람 사귀기 좋아라 하고 조잘조잘 수다 나누는 거 좋아라 하는 모든 걸 접어 두고 방콕하고 있습니다. 8월, 내 삶의 한계를 벌써 실감하고 싶어 그러고 있네요. 셋째 태어나고 나면 뭇사람들 집에서만 살아야하는데 괜스리 바람들지 않으려고, 새로운 인연을 만들고 또 맘을 나누고 밥을 함께 하기엔 짧은 시간인듯하여 ... 그러면서 나를 달래고 있습니다.

제주 살면서 불만이 맛난 농산물이 별로 없다는 거였는데 강화는 참 맛난 농산물이 많아 좋습니다. 고구마며 감자며 찌르는 게 일상이 되고 어젠 옥수수를 판매하는 트럭을 보곤 저걸 어찌 싸게 살까 고민했지요. 잔뜩 찌다가 책여우 모임 때 다 같이 둘러앉아 책 핑계 살아 수다 떨며 먹고 싶네요. 책여우 모임에서 영양가있는 수다는 어디에도 없는 듯합니다. 여긴 먼사무소 옆 새마을문고가 있어요. 얼른 파악해 놓고 줄곧 다녀야지 했더니 동화 읽는 모임은 없네요. 하성이랑 서진이 데리고 가서 동화책 읽어주곤 나도 소설 한 권 잡고 읽다웁니다. 책이 있어 다행이다 싶다가도 맘 나눌 이를 어디서 찾을까 하며 돌아웁니다.

그리워할 제주가 내 맘에 있어 감사하고 그 넓은 하늘과 푸른 바다가 있어 가고 싶고 밥 나누고 삶 나누는 설문대도서관이 제주에 있어 감사한 오늘입니다

다들 자알 지내세요. 그래야 또 만나지요. 더 반갑고 만날 어느 날을 기대합니다.

※김연지씨는 설문대 책여우로 활동하다가 한 달 전에 강화도로 이사 왔습니다. 강화에서도 건강하게 생활하기를 설문대가 항상 응원할게요^^

소박한 힘 '프랑스 앙비엘레 책마을'

우리 일행은 스위스의 하이디마을을 거쳐 제네바에서 승용차로 4시간정도 달려 프랑스 남부지방에 위치한 앙비엘레 책 마을을 찾았다. 스위스에서부터 동행해준 UN인권위원회k팀장과 앙트완느 프랑스신부님 덕분에 프랑스 책 마을 일정은 마을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앙비엘레 책 마을은 조성 된지 5년 밖에 안 된 유럽 책 마을 후발주자이다. 그래서 책방은 아직 4곳 밖에 없고 우리가 찾았을 때는 너무나도 한적한 시골마을이었다. '앙비엘레'는 인근에 로안느(Roanne)라는 대도시를 끼고 있다. 이곳은 "불꽃의 여자" 시몬느 베이유가 노동자로 일했던 공업지대이다. 그런 연유 때문인지 오늘날에도 프랑스의 대표적인 좌파지역이라고 동행했던 앙트완느 신부님이 귀뜸 해 준다. 문학과 노동운동의 역사가 깊은 곳이고 파리 지성인들이 은퇴 후 제2의 삶을 찾아 많이 내려오는 지역이기에 아마도 로안느에서 30분 거리에 있는 앙비엘레에 책 마을이 생겨났는지 모르겠다.

미리 인터뷰 예정된 앙비엘레 책마을협의회 대표이고 <지혜의 꽃>이라는 철학적 서점이름을 내건 장마크 디디용씨 역시 파리에서 일하다 은퇴 후 내려왔다. 2시간을 훌쩍 넘긴 인터뷰내내 세월이 갈수록 책방과 책방을 하려는 사람이 줄어들고 있는 것이 프랑스의 국가적 망신이라고 흥분한다. 67세의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열정적인 이분의 말에 의하면 슈퍼에서 책을 파는 행위는 대단히 부끄러운 일이며 홍당무와 양파와 감자 사이에 책을 끼워 놓아 사가는 요즘의 책 판매 행태는 대단히 몰지각한 행위라고 한다. 진정한 책방주인이라면 책에 대해 조언할 수 있어야 하고, 책방을



찾는 사람들의 취향을 알아 그에 맞는 책을 골라줄 수 있어야 하며 정말로 책을 사랑할 줄 알아야 하는데 이런 책방주인이 차츰 사라져 가는 현실을 안타까워했다. 경제적으로는 어렵지만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찾아오고 같이 토론하고 책을 매개로 친구가 될 수 있는 그 즐거움 때문에 이 책 마을을 이끌어 나간다는 천진난만한 표정 속에서 남 같지 않은 동질감을 느낄 수 있었다.

앙비엘레 책마을의 시작은 책을 좋아하는 여러 명이 모여 함께 시작했다. 이 마을 중앙에 있는 15세기 건축물과 근처마을에 유서 깊은 마을이 있고 그 중 한마을은 예술가들이 정착해 사는 곳이 있는 관계로 이 마을을 선정하게 되었다고 한다. 처음에 책방을 만들려는 4명이 오니까 주민들은 차라리 정육점이나 할 것이지 오지 마을에 무슨 서점이나 하며 코웃음을 쳤지만 꾸준히 주민들과 어울리고 아이들이 책방에 찾아오면서 이제는 마을의 문화유산으로 생각한다고 한다. 지금 제주에서 벌이고 있는 마을 살리기 운동과 예술인 마을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해보게 하는 대목이다.

행복한 책 나들이

금요일을 기다리는 아이들

남읍병설유치원선생님

금요일이면 설문대 어린이 도서관에서 우리 유치원을 찾아옵니다. 선생님들이 처음 오신 날, 사슴반 친구들은 눈이 반짝반짝 '어떤 선생님이실까? 남자 선생님도 계시네! 손에 들고 오신 건 뭐지?' 하며 호기심이 발동해서 책에 대한 관심과 함께 도서관 선생님에 대한 궁금증도 컸답니다. 한주 한주가 지나며 선생님들이 오시는 금요일이 가까워질수록 "선생님, 도서관 선생님 오늘 오시는 날이에요?" 하고 친구들이 물어봅니다. 선생님들이 언제 오시나 창밖을 내다보기도 하고 도서관에서 매 주 빌려주신 책을 보며 기다림을 달래는 친구도 있답니다. 드디어! 도서관 선생님이 유치원 문에 들어서시면 언제 알았는지 "선생님! 도서관 선생님이 오셨어요."하며 반깁니다. 오늘은 어떤 책을 보여주실지 선생님이 들고 계신 가방에 눈길만 먼저 가는 친구도 있고, 선생님 중에 뭔가 변화를 주신 분이 계신지 물어오는 입구부터 의자에 앉으실 때 까지 눈을 떼지 않는 친구 등



설문대 어린이 도서관 선생님들은 친구들의 기대, 흥미, 관심 덩어리입니다.

설문대 어린이 도서관이 우리 유치원에 방문해 주시면서, 친구들이 책을 보는 방법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책을 꺼내어 한 장, 한 장 그냥 넘기지만 하거나 글자에만 집중해서 보던 친구들이 지금은 책의 표지에도 관심을 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을지 상상해보기도 하고 책 안에 있는 주인공이나 인물들이 어떤 표정을 하고 있는지 자세히 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어떤 모습일지를 생각하며 웃기도 하고 화내기도 하면서 책의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 유치원 친구들에게 책은 글자를 배우는 도구가 아닌 새로운 세상을 접하는 통로로 만들어주시는 설문대 어린이 도서관 선생님들 ~ 너무 감사드리고 지금처럼 우리 친구들에게 더 많은 다양한 세상을 보여주세요.